

2025. 1.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5. 1. 5.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Mission On Plus, 교회를 세우는 교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국내외 해외에 많은 아웃리치팀들이 나아가서 생명을 전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형제교회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초대하여, 선교로 온 교회가 충만해지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한 역사학자의 말이 형제 공동체 안에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우리 형제교회는 선교를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나아갑니다. 2025 형제 공동체는 “Mission On Plus,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외칠 것입니다. 지난 해 하나님께서는 형제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형제 공동체는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뿐 아니라, 이제 그들도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Equip)하는 것입니다. 여러 아웃리치를 통해서 국내외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형제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선교를 그저 많은 교회 사역들 중의 하나로 보는 것 아니라, 모든 사역의 기초이고 핵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나와 가족들과 손식구들이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름에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갑시다.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1월 6일 본문, P180 |

마음 열기 Ice Breakers

도로 표지판과 관련하여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복음 2:1-12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요한이 여러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이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기적miracle이 아니라 표적sign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도로 위의 Exit 사인처럼 무엇인가 실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표적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목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요 20:31). 요한이 언급한 일곱 가지 표적들을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그 표적들 중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을 모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의 표적

-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요 2:1-11)
- 신하의 아들들 고치신 표적(요 4:46-54)
-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요 5:1-15)
- 오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요 6:5-14)
-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요 6:16-24)
-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요 9:1-7)
- 죽은지 나흘이나 지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요 11:1-45)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지역의 한 결혼 잔치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나요? (7-9절)

1-2 < 적용과 나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요 주인이시며 공급자임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와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2-1 < 관찰과 묵상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9-10절)

2-2 < 적용과 나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애(사랑과 긍휼)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 표적들을 배열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나의 결혼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결혼 잔치는 매우 중요했고,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매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혼인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요 2:11).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대로, 열거되는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 2 여러가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순원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해주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1월 11일 본문, P180 |

마음 열기 Ice Breakers

도로 표지판과 관련하여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연결어 도로 위의 표지판들이 우리에게 목적지로 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복음 2:1-12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 <가나의 혼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시고	1 On the third day there was a wedding at Cana in Galilee, and the mother of Jesus was there.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2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2 Jesus also was invited to the wedding with his disciples.
3 포도주가 떨어진다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3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3 When the wine ran out, the mother of Jesus said to him, “They have no wine.”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4 And Jesus said to her, “Woman,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 My hour has not yet come.”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5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5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6 가까운 곳에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6 Now there were six stone water jars there for the Jewish rites of purification, each holding twenty or thirty gallons.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7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7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And they filled them up to the brim.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 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 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 니라

8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 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9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 된 포 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 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 했지만 물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 을 불렀습니다.

10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 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 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지 남겨 두었군요.”

11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 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8 And he said to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feast." So they took it.

9 When the master of the feast tasted the water now become wine, and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 (th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 master of the feast called the bridegroom

10 and said to him, "Everyone serves the good wine first, and when people have drunk freely, then the poor wine. But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11 This, the first of his signs, Jesus did at Cana in Galilee, and manifest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요한이 여러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이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기적miracle이 아니라 표적sign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도로 위의 Exit 사인처럼 무엇인가 실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표적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목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요 20:31). 다음 요한이 언급한 일곱 가지 표적들을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그 표적들 중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을 모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의 표적

-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요 2:1-11)
- 신하의 아들들 고치신 표적(요 4:46-54)
-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요 5:1-15)
- 오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요 6:5-14)
-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요 6:16-24)
-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요 9:1-7)
- 죽은지 나흘이나 지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요 11:1-45)

1-1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지역의 한 결혼 잔치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나요? (7-9절)

결혼 예식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고,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연회장은 포도주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해설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에 가나가 위치해 있었고, 이곳에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이거나 친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포도주에 대해서 마리아가 책임과 염려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측면에서,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당시 결혼예식은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님의 수를 고려하여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혼 예식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을 나타냅니다.

1-2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요 주인이시며 공급자임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와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해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신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무시하지 않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2-1 < 관찰과 묵상 >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9-10절)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아는 사람들은 마리아, 제자들, 하인들입니다.

해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이며, 정중한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 상황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생애의 시기가 달랐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예수님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2 < 적용과 나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알게 된 진리 또는 얻게 된 신앙적 유익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해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인지적으로 모두 이해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 표적들을 배열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나의 결혼 잔치에 가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결혼 잔치는 매우 중요했고,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매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혼인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요 2:11).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대로, 열거되는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 2 여러가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순원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해 주소서.

1절 갈릴리 가나에 혼례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에 가나가 있었고, 이곳에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이거나 친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포도주에 대해서 마리아가 책임과 염려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Jewish weddings were important and joyful occasions in the lives of the bride and the groom and their extended families, and the entire community joined in the celebration. Cana was not far from Jesus’ hometown of Nazareth (less than ten miles), and the fact that the guest list included Jesus and his disciples as well as his mother may indicate the wedding of a close family friend or relative. This may also explain why Jesus’ mother felt responsible to help when the hosts had run out of wine.”_Andreas J. Köstenberger, BECNT: JOHN, 70.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당시 문화적인 측면에서,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당시 결혼예식은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님의 수를 고려하여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혼 예식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At a cultural level, running out of wine was considered to be a major social faux pas, since the host was responsible to provide the wedding guests with wine for seven days. There may even have been legal obligations.”_Andreas J. Köstenberger, BECNT: JOHN, 70.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어머니에게 3인칭을 사용하여 ‘여자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이며, 정중한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 상황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생애의 시기가 달랐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Jesus’ address of his mother as “woman”(γύναι, gynai) sounds brusque (Ridderbos 1997: 105); at the very least, it establishes polite distance. Yet the expression, while not particularly endearing, need not be harsh.”_Andreas J. Köstenberger, BECNT: JOHN, 72.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예수님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무슨 일든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Despite her son’s cool response, Jesus’ mother is not to be deterred. Though she realizes that Jesus will do what he thinks best, she also expects that he will act on her behalf. Though she does not have authority over Jesus, she does express her faith.”_Andreas J. Köstenberger, BECNT: JOHN, 73.

6절 정결 예식 ... 돌항아리 여섯 결혼 예식 식당 또는 뒤 뜰에 여섯 개의 돌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예식에 필요한 식기구를 씻거나 손님들의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의 저작물들 중에, 숫자 7은 완전함을 나타내며, 숫자 6은 불완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돌항아리 여섯은 불완전한 상황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This may have involved the washing of certain utensils used at the wedding and the washing of the guests’ hands (cf. Mark 7:2-5; more broadly, John 3:25; see Deines 1993: 247-75, esp. 274).”_Andreas J. Köstenberger, BECNT: JOHN, 72.

10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당시 연회장은 영향력 또는 명예를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연회

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가 탁월함을 언급했습니다. 포도주의 탁월함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의 신성의 탁월함을 예표합니다.

11절 첫 표적...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오직 마리아, 제자들, 종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탁월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시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로부터 이 일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표적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탁월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There he performs the first of his startling signs, providing his followers with an initial glimpse of his messianic identity." _Andreas J. Köstenberger, BECNT: JOHN, 70.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3, 1월 15일 본문, P182 |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과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복음 5:1-18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일곱 가지 표적들을 요한복음에서 열거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요한복음 2:1-11)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고치신 표적(요 4:46-54)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신 표적(요 5:1-15)입니다. 그 이후에도 네 개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8년 동안 병자로 살면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표적을 살펴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6, 8, 14절)

1-2 < 적용과 나눔 > 내가 초라한 처지에 있거나 연약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2-1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날은 무슨 날이었으며,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9-10절)

2-2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것을 아시고도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예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옆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하던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환자는 연못에 소용돌이가 있을 때, 빨리 들어감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환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참된 회복자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랫동안 고통받는 환자를 고쳐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수님만이 참된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 2 나와 가정과 순식구들 가운데,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3, 1월 15일 본문, P182 |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과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복음 5:1-18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p>1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p> <p>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텔사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p> <p>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p> <p>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p> <p>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p> <p>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p> <p>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p>	<p>1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p> <p>2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텔사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p> <p>3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p> <p>4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니었습니다.]</p> <p>5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p> <p>6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아 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p> <p>7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p>	<p>1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p> <p>2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in Aramaic called Bethesda, which has five roofed colonnades.</p> <p>3 In these lay a multitude of invalids--blind, lame, and paralyzed.</p> <p>4</p> <p>5 One man was there who had been an invalid for thirty-eight years.</p> <p>6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had already been there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healed?"</p> <p>7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and while I am go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p>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나 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8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 그러자 그가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0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11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12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13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14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가 다 나왔구나. 더 심한 병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15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16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18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8 Jesus said to him, “Get up, take up your bed, and walk.”
 9 And at once the man was healed, and he took up his bed and walked. Now that day was the Sabbath.
 10 So the Jews said to the man who had been healed, “It is the Sabbath, an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take up your bed.”
 11 But he answered them, “The man who healed me, that man said to me, ‘Take up your bed, and walk.’”
 12 They asked him, “Who is the man who said to you, ‘Take up your bed and walk?’”
 13 Now the man who had been healed did not know who it was, for Jesus had withdrawn, as there was a crowd in the place.
 14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are well! Sin no more, that no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15 The man went away and told the Jews that it was Jesus who had healed him.
 16 And this was why the Jews were persecuting Jesus, because he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17 But Jesus answered them, “My Father is working until now, and I am working.”
 18 This was why the Jews were seeking all the more to kill him, because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일곱 가지 표적들을 요한복음에서 열거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요 2:1-11)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고치신 표적(요 4:46-54)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신 표적(요 5:1-15)입니다. 그 이후에도 네 개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8년 동안 병자로 살면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표적을 살펴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6, 8, 14절)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행각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연못 주변에 종종 행각을 지어서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세기 당시 평균 남성연령이 40세 인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환자로 누워 있었으니, 평생동안 절망 가운데 구걸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쳐 주신 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로 인해서 더 심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죄짓는 것을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Köstenberger, John in BECNT, 119).

1-2 < 적용과 나눔 > 내가 초라한 처지에 있거나 연약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해설 본문 7절에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한다고 환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 목적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을 돌보아 줄 가족도, 친구들도 없었던, 홀로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찾아 오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2-1 <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날은 무슨 날이었으며,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나요?(9-10절)

그 날은 안식일이었으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환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해설 그 당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이 행위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해 놓은 추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 사바트 7장 2절에 안식일에는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규칙("from one domain into another"(m. Sabbat. 7.2.) 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동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2-2 < 적용과 나눔 >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것을 아시고도 안식일에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해설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더라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옆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하던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환자는 연못에 소용돌이가 있을 때, 빨리 들어감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환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참된 회복자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랫동안 고통받는 환자를 고쳐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구원해주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수님만이 참된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 2 나와 가정과 순식구들 가운데,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1절 유대인의 명절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이 세 가지 명절들 중 하나인데, 장막절the Tabernacle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유월절을 지냈고, 1세기 문헌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장막절을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종종 “그 절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Tabernacles may be suggested by the fact that some MSS have “the” festival of the Jews, the conventional name for Tabernacles.”_Andreas J. Köstenberger, BECNT: JOHN, 117.

2절a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양들 또는 다른 가축들이 드나들던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이름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으로 제사를 드릴 양들과 가축들이 드나들면서 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물을 정결하게 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절b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에 행각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연못 주변에 종종 행각을 지어서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The five colonnades may have been erected by Herod the Great (Hengel 1999: 310-12). … There, invalids could lie and be partially protected from the weather.”_Andreas J. Köstenberger, BECNT: JOHN, 198.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본문에서 요한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낚는다는 소문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 앞뒤로 괄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쳐진 이유는,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했다기보다는,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 또는 추측을 반영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 이 구절이 없는 종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교 문헌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기록이 어디를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소용돌이가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종종 아래에서 샘이 솟아나거나, 물이 빠지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학자들은 해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장소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6절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 된 줄 아시고 사도 요한은 이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세기 당시 평균 남성연령이 40세 인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환자로 누워 있었으니, 평생동안 절망 가운데 구걸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본문에 나오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 목적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을 돌보아 줄 가족도, 친구들도 없었던, 홀로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14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단어는 단순히 죄로 인해서 더 심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죄짓는 것을 주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In the present instance, moreover, the

“something worse” that Jesus threatened probably refers not to a worse physical condition at all but rather to eternal judgment for sin (cf. John 5:22-30).” _ Köstenberger, BECNT: JOHN, 119.

16절 안식일 그 당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이 행위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해 놓은 다른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 사바트 7장 2절에 안식일에는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규칙(“from one domain into another”(m. Šabbat. 7.2.)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동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however, the man was violating a code that prohibited the carrying of an object “from one domain into another” (m. Šabb. 7.2; in the present instance, his mat). Apparently, it was permissible to carry a bed with a person lying on it, but not one that was empty (m. Šabb. 10.5).” _ Köstenberger, BECNT: JOHN, 119.

17절a 내 아버지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반응했습니다.

“Jesus’ address of God as his “Father” is striking. It would have been highly unusual for a Jew of that day to address God simply as “my Father” without some qualifying phrase such as “in heaven” in order to avoid undue familiarity (Morris 1974: 31-35; Jeremias 1971: 61-67).” _ Köstenberger, BECNT: JOHN, 120.

17절b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더라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The consensus among Jewish rabbis was that God does indeed work constantly, but that this does not amount to him breaking the Sabbath. Since the entire universe is his domain, he cannot be charged with transporting an object from one domain to another.” _ Köstenberger, BECNT: JOHN, 121.

• 1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

주요 사역 일정

- 새해에 사역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팀 리더십에 성령님과 지혜를 채워주소서.
- 선교헌금 작정주일(1/12)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아가게 하소서.
- 신년사경회(1/13-17)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임도균 목사님의 영적,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 성경읽기 챌린지 모세오경 1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 프랑스 300용사 기도 아웃리치를 통해서 불어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소서.
- 공동체 30일을 준비하는 사역자팀과 캠페인 팀에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 순들을 섬기는 순장, 순모님에게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 됨을 이루게 하소서.
- EW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새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순과 순장님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 일정

- Sonlight 학생들이 2025년에 영적인 성장과 충전이 되는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성숙해지기는 은혜를 주소서.
- Coram Deo 학생들이 새해에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2월 15-17일에 있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 NEXT 학생들이 2월 15-17일에 Warm Beach Camp에서 수련회를 가지는 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 EW College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주소서.

2025. 1.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5. 1. 5.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역은이 | 권준

퍼낸이 | 공동체 목회자팀

이메일 | hyungjaecommunity@hyungjae.org

주소 |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연락처 | 425-488-1004